

# 한국타이어, 매출 2조원 달성 충분

상반기 9997억원으로 9.5% 증가 ... UHP타이어 판매급증에 수출 호조

한국타이어는 2005년 상반기에 수출 증가와 고부가가치제품 판매 증대 등에 힘입어 1조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등 사상 최대실적을 거두었다고 8월9일 발표했다.

한국타이어의 상반기 매출(중국본부 제외)은 999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.5% 증가했고, 영업이익은 1396억원으로 5.5%, 순이익은 1144억원으로 13.1% 늘어났다.

2/4분기에는 매출 5240억원, 영업이익 712억원, 순이익 578억원으로 1/4분기보다 각각 10.2%, 4.2%, 2.0% 증가했다.

한국타이어는 상반기에 사상 최대실적을 거둔 것은 고부가가치 UHP타이어 판매가 42.6% 늘어나고 수출도 2004년 상반기 4억2688만달러에서 2005년 상반기 5억3133만달러로 24% 가량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.

한국타이어는 포드와 볼보, 폴크스바겐, 르노 등 해외 유명 자동차에 대한 성공적인 공급과 해외 브랜드 인지도 및 기업가치 상승, 스포츠 후원을 통한 공격적 해외마케팅 등에 힘입어 상반기 수출이 북미지역은 32%, 유럽은 17%, 중남미는 93% 가량 증가했다.

또 2004년 해외시장에서 실시한 5-7%의 가격인상과 ERP(전사적 자원관리) 정착에 따른 생산성 향상, 부채 축소와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 등이 이익 증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.

한국타이어는 수출이 대체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많고 주요 수출기지인 미주와 유럽시장의 주문량이 밀려 있으며, 상반기 가격 인상분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005년 전체적으로 매출 2조 66억원, 수출 10억달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.

<화학저널 2005/08/10>